

간호학생의 간호관련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

이 순 희¹⁾ · 김 속 영²⁾ · 김 정 아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윤리적 가치관을 갖는 일은 행동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의식 형성과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의료소비자의 권리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개인주의의 팽배와 도덕적 위기상황에 함께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권영미, 2002). 이러한 윤리와 도덕적 위기는 도덕 판단력 수준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윤리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한성숙과 안성희, 1995).

간호학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생명존중을 기본이념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간호실무 능력 뿐 아니라, 고도의 간호윤리가 강조되는 전문직이다(박미화, 2000). 특히 법적 책임 및 윤리적 판단과 함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된다(안성희, 한성숙과 김중호, 1996).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근거하므로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윤리 원칙에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는 윤리관을 통하여 간호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곧 양질의 간호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바람직한 윤리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및 학습이 요구되고, 또한 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이 도덕 판단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Self, Olivarez, & Baldwin, 1998), 간호대학에서의 윤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Dierckx, Janssen and Grypdonck(1996)도 간호학생의 교육과 윤리적 행위의 관계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윤리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으며, Chrisham(1981)도 그의 연구에서 도덕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규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윤리교육은 3~4학년 과정 동안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도덕 윤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미흡하고, 그 방법 또한 복잡하고 다차원적이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권영미, 2002).

또한 이제까지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안은경, 구옥희, 김태숙, 1998), 임상간호사들의 가치관 및 가치성향에 대한 연구(이경혜, 방희숙과 왕임순, 1995), 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이영숙, 1990),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정희자와 문희자, 1995) 등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대부분이며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주요어 : 간호학생, 간호윤리, 윤리적 가치관

1) 국립충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서울여자간호대학 부교수
3) 한국 노인요양시설 경영연구회 이사(교신처자 E-mail: joyhippo@chol.com)
투고일: 2007년 2월 13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5일

논문 대부분이 수 년 전에 발표된 것으로, 윤리와 도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윤리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 관련 특성에 따라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여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 확립 뿐 아니라 간호윤리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확인하고,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들의 간호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들의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한다.

용어 정의

● 간호관련 특성

간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www.naver.com)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간호과 지망순위, 입원경험, 가족의 입원으로 보호자 역할을 담당한 경험,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 가족이나 친지 중에 간호사가 있는지의 여부,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보거나 들은 경험,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윤리적 가치관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 생각 또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정범모, 1983) 본 연구에서는 이영숙(199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과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확인하고,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관계분석연구이다.

연구대상

충북소재 일개 간호과와 서울소재 일개 간호과 1, 2, 3학년 학생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028명을 편의 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3년제 간호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학생들은 2학년 1학기에 최초의 임상실습을 시작해 3학년 2학기까지 총 4학기에 걸쳐 임상실습을 경험하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간호학과 관련된 강의 수강 및 임상실습 경험이 전혀 없는 1학년 학생 384명, 9개 교과목의 간호학 강의 수강은 하였으나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 146명, 9개 교과목의 간호학 강의 수강 및 1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 학생 148명, 19개 교과목의 간호학 강의 수강을 하고, 3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학생 35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도구

●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결혼상태, 종교 등이었으며, 간호관련 특성으로는 간호과 지망순위, 입원경험, 가족의 입원으로 보호자 역할을 담당한 경험,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 가족이나 친지 중에 간호사가 있는지 여부,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보거나 들은 경험,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명목 혹은 서열적으로 측정하였다.

●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영숙(1990)이 개발한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를 권영미(2002)가 수정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도구와 권영미(2002)가 수정보완 한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Ch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구해 신뢰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도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된 문항 3개와 Factor Analysis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하위영역에 Fac 색 loading .30이상의 값을 나타내 변별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2개 문항 등 5 문항을 제외한 총 2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인간생명영역 8문항, 대상자관계영역 7문항, 간호

업무관계영역 6문항, 협동자 관계영역 4문항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찬성한다 1점부터 반대한다 5점까지 득점이 가능한 Likert식 측정도구로서 25점부터 125점까지 득점이 가능하다.

각 영역은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론적 입장의 문항들은 역환산하였다(권영미, 2002). 즉 절대적 공리주의 입장을 1점, 절대적 의무주의 입장을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권영미(2002)의 연구에서 .6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질문지 작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해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1일간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순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순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시행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는 SNK(Student Newman-Keuls) test를 시행하였다.
-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구하고,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Factor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학 관련 강의나 임상실습경험이 전무한 1학년 학생이 37%, 간호학 관련 강의는 수강했으나 임상실습경험은 없는 2

학년 학생이 14%, 간호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1학기의 임상실습경험을 한 2학년 학생이 14%, 그리고 간호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3학기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학생이 34%였다. 간호학생의 연령은 평균 22.72±2.14세로, 21-25세가 거의 70%를 차지했으며 30세 이상인 학생도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한 학생이 약 2%이고 나머지는 모두 미혼이었으며, 종교는 개신교가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교와 천주교 순이었고, 불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1028)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학년	1학년	384	37.4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2학년	146	14.2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	148	14.4
	3학년	350	34.0
연령	20세 이하	239	23.3
	21-25세	702	68.4
	26-30세	69	6.7
	30세 이상	17	1.7
결혼상태	미혼	1009	98.2
	기혼	19	1.8
종교	개신교	379	36.8
	천주교	141	14.7
	불교	121	11.8
	무교	378	36.7

간호학생의 간호관련 특성

간호학생의 간호관련 특성이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연구대상자들의 간호관련 특성 (n=1028)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입학당시 지망순위	1순위	675	65.9
	2순위	152	14.8
	3순위	97	9.5
	편입	101	9.9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18	1.8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86	8.4
	보통이다	357	34.8
	대체로 만족스럽다	459	44.7
	매우 만족스럽다	107	10.4
본인의 입원경험	없음	726	70.6
	있음	302	29.4
가족 입원 시	없음	438	42.7
	있음	588	57.3
보호자 역할경험	없음	74	7.2
	있음	954	92.8
입원환자의 면회경험	없음	668	65.0
	있음	360	35.0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	없음	64	6.2
	있음	962	93.8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	없음	64	6.2
	있음	962	93.8

입학당시 1지망으로 간호과를 지원했던 학생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과로 편입한 학생이 전체의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55%가 간호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0%였다.

간호학생 본인이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29%,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 역할을 경험한 학생이 57%였

으며, 93%의 학생이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이 있었고, 가족이나 친지 중에 간호사가 있는 학생이 전체의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4%인데 반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였다.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표 3> 연구대상자들의 윤리적 가치관

(n=1028)

문항 번호	하위영역별 항목	M±SD	Ranking
인간생명 영역			
1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58±1.17	21
5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50±1.13	22
9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무의식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 작동을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중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29±1.16	16
13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32±1.21	15
17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89±1.08	8
20	심한 선천성 기형으로 살 가망이 없는 신생아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59±1.23	14
26	인공임신증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46±1.10	24
29	인공임신증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5±1.18	25
소계 M±SD (24.11±5.46)		3.01±.68	
대상자 관계영역			
10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	4.28±.97	5
14	환자가 원하면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0±1.07	7
18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진단이나 예후에 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69±1.09	11
21	사고로 인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경우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86±1.23	9
24	환자가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간호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간호를 해야한다.*	3.72±1.10	10
27	지나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환자는 문제 환자이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3
30	환자가 약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27±1.14	17
소계 M±SD (26.57±3.66)		3.79±.52	
간호업무관계 영역			
3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60±.71	1
7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억제대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1±1.11	19
11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치료해도 불구가 될 중환자보다는 재활이 가능한 경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85±1.30	20
15	처치를 잘못했으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이 자기만 알고 있는 실수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3.68±1.02	12
19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7±.81	3
28	환자가 진통제를 맞은지 2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진통제를 요구하고 다른 통증완화 방법을 시행해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위약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49±1.05	23
소계 M±SD (21.01±2.84)		3.50±.47	
협동자 관계 영역			
4	동료간호사가 처치 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44±.75	2
8	의사나 동료 간호사가 간호기록의 내용을 바꾸어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36±.82	4
12	업무도중 동료 간호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른 척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27±.78	6
16	당신이 수간호사로 지목되고 있으나 친구가 수간호사에 더 적임자인 경우 감독 간호사에게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20±1.12	18
소계 M±SD (16.29±2.10)		4.07±.52	

* 역환산 문항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125점 만점에 88.03±9.46(60.00~120.00)인 것으로 나타나 의무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나타내었다<표 3>.

윤리적 가치관의 4개 하위영역도 모두 의무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협동자 관계영역이 의무주의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다음이 대상자 관계영역, 간호업무관계 영역 순이었고, 인간생명영역이 4개 하위영역 중에서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문항에서 평균 2.5점 이상으로 의무주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4.60±.71)’는 문항에 대해 가장 강한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반면, 공리주의적 입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문항은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45±1.18)’는 문항이었고,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2.46±1.10)’, ‘환자가 진통제를 맞는지 2시간이 다 되었는에도 진통제를 요구하고 다른 통증완화 방법을 시행해 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위약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2.49±1.05)’ 등의 문항에 대해서도 공리주의적 입장에 치우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간 상관관계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모든 하위영역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간호업무 관계영역과 협동자관계영역이 36%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학생의 학년, 연령, 종교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에 대해 추후검증을 한 결과, 간호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3학기 임상실습을 한 학생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는 천주교, 불교, 무교의 대상자들이 종교가 개신교인 대상자들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ANOVA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검증결과 집단이 구분되지는 않았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 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인간생명 영역과, 대상자관계 영역, 협동자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검증결과,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관계 영역에서는 간호학 관련 과목 강의를 수강하고 1학기 임

<표 4> 윤리적 가치관 하위영역간 관계

(n=1028)

	인간생명영역	대상자관계영역	간호업무관계영역	협동자관계영역
인간생명영역	1.00			
대상자관계영역	.122(<.001)	1.00		
간호업무관계영역	.266(<.001)	.322(<.001)	1.00	
협동자관계영역	.178(<.001)	.339(<.001)	.362(<.001)	1.00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n=1028)

변수	구분	Mean±SD	t or F	p-value	SNK
학년	1학년 ^a	89.46± 9.12	12.171	<.001	a,b,c,d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2학년 ^b	89.91± 9.26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 ^c	88.12± 9.17			
	3학년 ^d	85.68± 9.58			
연령	20세 이하 ^a	88.17± 8.57	2.430	.046	유의한 차이 없음
	21-25세 ^b	87.43± 9.46			
	26-30세 ^c	89.31±10.51			
	30세 이상 ^d	90.75±14.09			
결혼상태	미혼	88.00± 9.38	-1.108	.443	
	기혼	90.36±13.09			
종교	개신교 ^a	89.20± 9.84	3.342	.019	a>b,c,d
	천주교 ^b	87.51± 9.20			
	불교 ^c	88.11± 8.83			
	무교 ^d	87.06± 9.27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_하위영역의 차이

(n=1028)

변수	구분	인간생명 영역	대상자 관계 영역	간호업무 관계 영역	협동자 관계 영역
		Mean±SD/SNK	Mean±SD/SNK	Mean±SD/SNK	Mean±SD/SNK
학년	1학년 ^a	24.90±5.34 a,b,c>	26.85±3.65 c<a,b	21.12±2.89	16.54±2.01 유의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2학년 ^b	24.91±4.83 d	27.22±3.69 d<b	21.41±2.76	16.36±2.11 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 ^c	25.22±5.20	25.87±3.65	20.68±2.69	16.16±2.09 차이
	3학년 ^d	22.45±5.57	26.26±3.60	20.88±2.88	16.04±2.19 없음
	F(p-value)	16.907(<.001)	4.858(.002)	2.024(.109)	3.600(.013)
연령	20세 이하	24.80±5.05 유의	26.66±3.58	21.16±2.86	16.50±2.03
	21-25세	23.77±5.50 한	26.46±3.58	20.93±2.77	16.20±2.08
	26-30세	24.16±4.98 차이	27.46±4.46	21.31±3.34	16.36±2.29
	30세 이상	27.88±7.67 없음	26.55±2.29	21.55±3.77	16.11±3.48
	F(p-value)	2.963(.019)	1.186(.315)	.564(.688)	1.169(.323)
결혼상태	미혼	24.11±5.42	26.54±3.64	21.02±2.84	16.28±2.10
	기혼	24.63±7.29	27.68±4.71	21.10±3.34	16.94±2.46
	t(p-value)	-.309(.761)	-1.047(.180)	-.107(.916)	-1.174(.255)
종교	개신교 ^a	25.22±5.58 a>b,c,	26.45±3.62	21.11±2.87	16.35±2.03
	천주교 ^b	24.06±5.48 d	26.36±3.50	20.72±2.72	16.13±2.12
	불교 ^c	23.32±5.03	26.83±3.42	21.36±2.63	16.64±1.94
	무교 ^d	23.27±5.29	26.68±3.84	20.94±2.93	16.17±2.20
	F(p-value)	9.603(<.001)	.616(.604)	1.330(.263)	1.901(.128)

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 학생보다 강의는 수강했으나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2학년 학생들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자관계 영역에서는 집단이 구분되지 않았다.

연령과 종교에 따라서도 인간생명 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검증결과 연령의 경우는 유의한 집단구분이 되지 않았고, 종교의 경우 종교가 천주교와 불교, 무교인 대상자들이 종교가 개신교인 대상자들보다 공리주의적

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간호학생의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검증한 결과 간호과에 매우 만

<표 7>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n=1028)

변수	구분	Mean±SD	t or F	p-value	SNK
입학당시 지망순위	1순위	88.51± 9.68	2.006	.111	
	2순위	86.76± 7.67			
	3순위	87.94± 9.48			
	편입	86.82±10.07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a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b	87.50± 9.84			
	보통이다 ^c	87.51± 9.23			
	대체로 만족스럽다 ^d	88.29± 9.07			
	매우 만족스럽다 ^e	91.17±10.18			
본인의 입원경험	없음	88.21± 9.47	.901	.369	
	있음	87.62± 9.42			
가족 입원 시 보호자 역할경험	없음	87.87± 9.69	.539	.594	
	있음	88.19± 9.69			
입원환자의 면회경험	없음	86.23± 9.41	1.591	.095	
	있음	88.18± 9.41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	없음	87.88± 9.54	.705	.481	
	있음	88.32± 9.30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	없음	87.47± 8.54	.470	.638	
	있음	88.07± 9.52			

<표 8>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하위영역의 차이

(n=1028)

변수	구분	인간생명 영역	대상자 관계 영역	간호업무 관계 영역	협동자 관계 영역			
		Mean±SD/SNK	Mean±SD/SNK	Mean±SD/SNK	Mean±SD/SNK			
입학당시 지망순위	1순위	24.32±5.56	26.67±3.75	21.06±2.91	16.39±2.16			
	2순위	23.41±4.68	26.41±3.47	20.95±2.57	16.01±2.03			
	3순위	24.10±5.49	26.55±3.53	20.85±2.74	16.32±1.88			
	편입	23.61±5.59	26.21±3.50	22.93±2.93	15.99±2.07			
	F(p-value)	1.457(.225)	.579(.629)	.223(.880)	2.069(.103)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스럽다 ^a	23.00±6.69	a,b,c	26.16±3.14	b<e	21.72±3.44	16.61±2.03	b<a,c,
	대체로 불만스럽다 ^b	23.76±5.05	d<e	25.66±3.99		20.44±3.17	15.18±2.55	d,e
	보통이다 ^c	23.68±5.37		26.47±3.63		20.99±2.74	16.30±1.91	
	대체로 만족스럽다 ^d	24.22±5.32		26.67±3.61		21.02±2.85	16.34±2.10	
	매우 만족스럽다 ^e	25.42±6.21		27.27±3.71		21.49±2.77	16.85±2.10	
F(p-value)	2.403(.048)		2.509(.040)		1.898(.109)		8.179(<.001)	
본인의 입원경험	없음	24.28±5.41		26.55±3.68		21.03±2.88	16.28±2.09	
	있음	23.69±5.55		26.62±3.62		20.98±2.78	16.31±2.14	
	t(p-value)	1.562(.115)		-.277(.784)		.268(.789)		-.41(.810)
보호자 역할경험	없음	24.23±5.35		26.36±3.49		20.98±2.63	16.27±2.07	
	있음	24.02±5.54		26.72±3.78		21.06±2.98	16.31±2.11	
	t(p-value)	-.607(.546)		1.561(.113)		.429(.668)		.337(.736)
입원환자 면회경험	없음	24.23±5.65		25.25±3.64		21.06±3.10	15.69±2.43	
	있음	24.11±5.43		26.66±3.64		21.01±2.83	16.34±2.07	
	t(p-value)	-.180(.857)		3.184(.002)		-.133(.885)		2.508(.012)
가족친지 간호사	없음	24.13±5.56		26.46±3.73		21.03±2.85	16.21±2.15	
	있음	24.06±5.27		26.76±3.52		20.99±2.85	16.43±2.02	
	t(p-value)	-.199(.843)		1.245(.213)		-.232(.817)		1.628(.104)
대중보도 본경험	없음	23.11±5.27		26.85±3.07		21.28±2.73	16.16±2.07	
	있음	24.18±5.46		26.55±3.70		21.00±2.86	16.29±2.11	
	t(p-value)	1.545(.135)		-.616(.538)		-.771(.443)		.497(.620)

족하고 있는 학생이 간호과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의무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가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의 4개 하위영역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검증한 결과,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간호과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의무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 관계 영역에서는 간호과에 대체로 불만스러워하는 학생들보다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의무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자관계 영역에서는 간호과에 대체로 불만스러워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의무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업무관계 영역에서는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지 않았다.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에 따라 대상자관계 영역과 협동자관계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대상자관계 영역과 협동적관계 영역에서 의무주의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최근 생명윤리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료인의 윤리적 가치관이 문제되고 있으며, 간호사 또한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성숙한 도덕적 판단에 기인한 의사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이며,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 시절에 형성되는 가치관과 윤리교육이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인간의 안전과 안녕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방법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의료인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과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윤리교육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김태숙, 1999).

이에 본 연구는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윤리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윤리이론을 기초로 하여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125점 만점에 88.03으로 의무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미화(2000)의 연구에서도 윤리

적 가치관이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권영미(2002), 안은경 등(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리적 가치관의 4개 하위 영역 중에서는 협동자 관계 영역이 의무주의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이는 김태숙(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원리 원칙중심의 의료윤리가 잘 지켜지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감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가지 영역 중 가장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가까운 것은 인간생명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주희 등(1995)의 연구에서는 인간생명영역에서 의무주의와 공리주의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나머지 세 영역에서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미정과 김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인간생명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의무주의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간생명영역에서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근 학생들의 윤리식을 반영하고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안락사를 원할 경우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천적 기형아의 경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윤리 교과목 시간에 생명윤리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할 때에도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많은 학생들이 안락사나,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인간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근본문제 보다는 환자의 자율성에 더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연 환자의 경우 본인 생명에 대해 생명유지 장치를 거부하거나 안락사를 요구하는 등의 자율적 의사가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의사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한성숙 등, 2004). 또한 학생들이 인간생명영역에 대해 의무주의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항 중에서 가장 강한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낸 문항은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4.60±.71)’는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태숙(1999)연구에서는 공리주의적 특성을 나타낸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간호 전문직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이다. 이제까지 간호가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온 결과 과거에 비해 간호사들의 전문직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간호사가 의사의 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협동적인 관계보다는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개념이 우세하다(한성숙 등 2004). Poroch & McIntosh

(1995)도 그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사회적으로 우수한 여성 인력이면서도 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순종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스스로의 주장이 미약하다고 밝히고 있어 수직적 지배관계를 요구하는 의사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 제기를 하여 해결하는 전문직인의 자세가 필요하며 전문적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성인 자율성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리주의적 입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문항은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45±1.18)’는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보다는 대상자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의 우위를 누구에게 두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부모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현대 간호 대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엿보게 한다. 또한 이는 혼전 성관계에 의한 임신일 경우 태아의 생명 존엄성보다는 쉽게 임신중절을 택하는 요즘 대학생들의 성의식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윤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갈등상황과 윤리문제들에 대한 토론 등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주입식의 일방적 교육 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위약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에서 공리주의적 입장이 나타났다. 이는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신의의 원칙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약사용은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감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만약 위약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의의 간접주의 입장에서 정당한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한성숙 등, 2004)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관은 간호학생의 학년, 연령,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미혜(1999), 안은경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추후검증을 한 결과, 학년과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간호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3학기 임상실습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공리주의적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미화(2000)의 연구결과에서 1학년이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다가 1년 후에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그 후 임상실습과 윤리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강한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낸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성미혜(1999)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 적고 현재 직위가 낮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영숙(1990)의 연구에서도 간호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교육과 직위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취한다고 보고해,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Dierckx et al.(1996)도 교육과 윤리적 행위 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보통 실습초기에 다소 윤리적 갈등을 겪다가 더 많은 실습경험을 거친 후에는 윤리적 가치관이 의무론적 입장으로 확고해 지는 것(박미화, 2000)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간호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실습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공리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실습 전에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생각을 하다가 임상현장에서 실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면서 공리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태도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윤리교육을 통해 다시 의무론적 태도를 정립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권영미, 2002). 따라서 임상실습과 더불어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윤리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저학년에서 한 학기 강의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도덕적 책임감과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고학년에서는 윤리교육에 관한 교과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실시되는 윤리교육을 통하여 도덕 판단이 향상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Duckett et al., 1997; Self et al., 1998) 윤리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위해서는 전 교육과정에 걸쳐 윤리문제에 대한 계속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간호 실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을 통하여 윤리문제를 파악하고 사실적 정보를 통해 사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가치와 규칙들의 관계를 밝혀 윤리원리를 구체화하는 방식의 실제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권영미, 2002).

연령과 종교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인간생명 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검증결과 연령의 경우는 유의한 집단구분이 되지 않았고, 종교의 경우 천주교와 불교, 무교인 대상자들이 개신교인 대상자들보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화(2000)의 연구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인 사람이 의무론적인 입장을 보여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안은경 등(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김태숙(1999)도 그의 연구에서 종교 참여도가 간호학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밝히고 있어, 종교가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학생의 간호 관련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검증 한 결과 간호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 간호과에 매우 불만족

스러워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의무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미화(2000), 성미혜(1999), 안은경 등(1998)이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가 계속되어 관련 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권영미, 200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과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확인하고,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관계분석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총복소재 일개 간호과와 서울소재 일개 간호과 1, 2, 3학년 학생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028명을 편의 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질문지 작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해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1일간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간호학 관련 강의나 임상실습경험이 전무한 1학년 학생이 37%, 간호학 관련 강의는 수강했으나 임상실습경험은 없는 2학년 학생이 14%, 간호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1학기의 임상실습경험을 한 2학년 학생이 14%, 그리고 간호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3학기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학생이 34%였다. 간호학생의 연령은 평균 22.72±2.14세였으며, 종교는 개신교가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교와 천주교 순이었고, 불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간호학생의 간호관련 특성은 입학당시 1지망으로 간호과를 지원했던 학생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생의 55%가 간호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 본인이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29%,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 역할을 경험한 학생이 57%였으며, 93%의 학생이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이 있었고,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4%였다.
-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125점 만점에 88.03±9.46(60.00~120.00)인 것으로 나타나 의무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윤리적 가치관의 4개 하위영역도 모두 의무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인간생명영역이 4개 하위영역 중에서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학년, 연령, 종교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간호학생의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검증한 결과 간호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 간호과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의무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에게 윤리교육이 필요한 것은 봉사하는 전문인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복잡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간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의료직의 편파성 시비에 대응하는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정확한 윤리적 판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확대 적용된 반복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교육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학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련변인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임상상황에 맞는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권영미 (2002). 간호학생의 도덕판단과 윤리적 가치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17-28.
- 김미정, 김명희 (1999).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발달과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5(2), 347-351.
- 김주희, 안수연, 김지윤, 정주연, 김지미, 최선하, 권영은, 전미영, 김명희 (1995).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태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5(3), 496-509.
- 김태숙 (1999). 간호학과와 의학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29(4), 892-902.
- 박미화 (2000).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변화양상.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199-217.
- 성미혜 (1999). 임상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3), 551-553.
- 안성희, 한성숙, 김중호 (1996). 도덕판단력 진단검사에 의한 의과대학생의 도덕적 사고. *간호행정학회지*, 2(2), 85-95.
- 안은경, 구옥희, 김태숙 (1998).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행정학회지*, 4(1), 19-31.
- 이경혜, 방희숙, 왕임순 (1995). 임상간호사들의 가치관 및 가치성향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5(2), 279-294.
- 이영숙 (1990).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범모 (1983).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박영사.
- 정희자, 문희자 (1995).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2), 349-371.
- 한성숙, 안성희 (1995).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간호행정학회지*, 1(1), 5-21.
- 한성숙, 엄영란, 안성희, 김중호, 차성호, 권복규, 구인희, 임종식, 구영모 (2004). *간호윤리학*. 서울: 대한간호협회출판부.
- Chrisham, P. (1981). Measuring moral judgement in nursing dilemmas, *Nurs Res*, 30(2), 104-110.
- Dierckx de Casterle B., Janssen, P. J., Grypdonck, M.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ethical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West J Nurs Res*, 18(3), 330-350.
- Duckett, L., Rowan, M., Ryden, M., Krichbaum, K., Miller, M., Wainwright, H., & Savik, K. (1997). Progress in the moral reasoning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between program retry and exit. *Nurs Res*, 46(4), 222-229.
- Poroch, D., & McIntosh, W. (1995). Barriers to assertive skills in nurses. *Aust N Z J Ment Health Nurs*, 4(3), 113-23.
- Self, D. J., Olivarez, M., & Baldwin, D. C. Jr. (1998). Clarifying the relationship of medical education and moral development. *Acad Med*, 73(5), 517-520.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Lee, Soon Hee¹⁾ · Kim, Sook Young²⁾ · Kim, Jung A³⁾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 Executive, Korean Elderly Facility Management

Purpose: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 associated with the course of theories and practice which they are taking in their school, this study was conducted. **Method:** A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was a survey design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1030 nursing students attending two diploma degree nursing programs in Korea. Questions about their ethical value were asked the students from May, 1st 2005 to June, 30th, 2005,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on SPSS Win 11.0. **Result:** Mean score of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was 88.03 ± 9.46 . In addition, on such subcategory area as human-life, relationship with nursing client, relationship with collaborator,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grade.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satisfied with nursing showed meaningfully higher than that of nursing students unsatisfied with nursing. **Conclusions:** The finding of this study, consequently, showed that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 can be changed through nursing education. Especially, clinical practice conducted on actual clinical setting, which give nursing students opportunities for direct contact with patients, is likely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ethical values more than theory or practice in a school practice room.

Key words : Student, Nursing; Ethics,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ung A

Korean Elderly Facility Management

Department of Nursing Administration,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Dahyun-dong, Sudaemoon-gu, Seoul, 120-750

Tel: 82-2-2297-8613 Fax: 82-2-2297-8613 E-mail: joyhippo@chol.com